

여군목 제도 창설에 대한 성경적 근거

(Biblical Foundation for Woman Chaplain System)

이종윤 목사



- 서울교회(Rev. Ph.D. D.D.)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M.Div)
- 영국 Univ. of St. Andrews(Ph.D.)
- 독일 튀빙겐 대학
- 장신대 명예신학박사(D.D.) 학위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비전 2020운동 실천위원장
- 장로교신학회 회장, 한기총 신학위원장

1. 성경은 과연 여(女)-남(男)을 차별(差別)하는가?

보통 사람들, 특히 여성 신학자 및 여권(女權) 신장(伸張) 운동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여-남을 차별(差別)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은 가부장적(家父長的)이다’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성경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성경이야말로 최초로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성의 사회적 혹은 집단 구조에서의 역할을 그 어느 책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기사에서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온 것이지만 여전히 그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남자 없이 여자가 생기지도 않았으며, 여자 없이 남자가 생기지도 않았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전 11:11-12).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고려해 볼 때, ‘성경이 여-남을 차별한다’거나, ‘성경이 가부장적(家父長的)이라고 하는 이해’는 오히려 여성 편협적(偏狹的)인 이해이다.

오히려 성경은 ‘여-남 평등’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결코 침묵하지 않고 있다.¹⁾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침묵을 넘어서서 ‘여성해방’을 주장하고 있다²⁾는 이들도 있다. 특히 여성들이 특정한 ‘조직사회(Gesellschaft)’ 속에서 행하는 구성원 사이의 ‘융화와 화해 능력’ 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 참고 견디는 인내와 지구력’은 남성의 능력 그 이상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필자는 ‘여(女) 군목(軍牧) 제도 창설’을 위

한 성경적 전거를 제시함으로써, 오늘 한국 ‘군인사회’, 즉 ‘군 조직’ 속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여군목 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는 아래에서 첫째로 창조신학적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둘째로 성경의 증언, 더 자세히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증언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셋째로 이를 토대로 여군목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간학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여군목 제도’가 미래 한국 군대(軍隊)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무엇보다도 사회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때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혹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캠페인(campaign)으로 인하여 현재 한국 사회는 이미 남-여 성(性) 비율의 격차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여성들도 국방의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권이 신장(伸張)됨으로써 남성들만의 직업에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人間)

1)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

창세기 1장 26-27절과 5장 1-2절에 의하면 남녀(男女)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³⁾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존재론적으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1) Elisabeth Schüssler Fiorenza, “Neither Male Nor Female: Galatians 3:28ff”, *IN MEMORY OF HER, A Feminist Theological Reconstruction of Christian Origins* (New York: Crossroad, 1984), 205–241; “바울로 공동체의 남녀평등”, <여성들을 위한 신학>[이우정 편],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165–220; Rosemary R. Ruether, “Is Christianity Misogynist?” “그리스도교는 여성혐오의 입장에 서 있는가?”, <여성들을 위한 신학>, pp. 251–273

2) 이경숙, “예언서에 나타난 여성해방의 전거”, <성서와 여성신학>(한국여성신학회 편, 2집, 1995), 233–247; Rosemary R. Ruether, “Feminist Theology and Spirituality” “여성해방의 신학과 영성”, <여성들을 위한 신학>, 366–396; Elisabeth Schüssler Fiorenza, “Emerging issues in Feminist Biblical Interpretation” <여성들을 위한 신학>, pp. 91–118.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전 11:11-12)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성경은 남녀의 차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남녀는 서로 하나가 됨으로써 온전해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이렇게 남-여가 한 분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점에서 남녀 사이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

오히려 여자는 창조될 때부터 남자를 ‘돕는 자’로서의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남자를 도와주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히브리어 ‘에제르 케넵도(עֶזֶר כְּנֶגְדּוֹ, ezer knegdo)’로서 영어로는 ‘a helper suitable for him’, 곧 ‘그에게 적합한 돕는 자’라는 뜻이다. ‘돕는 자’는 종 즉 신분이 낮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높은 자를 뜻한다.⁵⁾ 그래서 시편 기자는 ‘돕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랍이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시 33:20, 이밖에 창 49:25; 삼하 7:12; 대하 14:10, 18:31, 26:7, 25:8; 시 79:9, 119:26, 86 등).⁶⁾ 그러므로 남녀는 창조 당시부터 서로 차별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문화를 창조해야 할 ‘협

력자’ 혹은 ‘동반자’이다. “하나님이 그들(=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이런 의미에서 창조 당시 문화명령도 남녀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곧 타락 이전 남녀의 차별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타락 이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창지기 직’을 함께 수행해야 할 ‘협력자’이며, 동시에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계승해야 할 ‘동반자’였다. 그러나 여기서 혹자는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창 3:16)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와(여자)에 대한 징벌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남자와 여자는 서로 ‘협력자’요 ‘동반자’였다. 그러나 아담(남자)과 하와(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7)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난 후부터는 ‘남자에게 자기의 여자를 다스릴 책임’이 주어졌다. 그러나 혹자는 “남편은 너(= 여자)를 다스릴 것이니라”(창 3:16b)는 말씀을 여자에 대한 남자의 ‘지배권’으로 해석하여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종속의 개념’만 이 아니라, ‘바로 가르치고, 지도할 책임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스릴 것’이라는 히브리어 ‘마샬(מָשַׁל, mashaal)’이란 단어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창 1:18; 출 21:8; 신 15:6; 잠 22:7),⁷⁾ ‘상응하다(gleich sein)’, ‘비슷하다’ 혹은, ‘따르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다.⁸⁾ 그러므로 루터는 이 구절을 “Und dein

3)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창 5:1-2).

4) 여성 신학적 차원에서 창 2-3장에 대한 해석: Phyllis Trible, “Eve and Adam: Genesis 2-3 Read”(=〈여성들을 위한 신학〉, pp. 150-164)

5) 그러나 킬러는 ‘ezer’를 ‘남녀 평등’으로 해석한다. L. Koehler and W. Baumgartner,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Leiden: E. J. Brill, 1958), p. 591ff.

6) 이 점에 관하여: Lipiński, Art. ‘עֶזֶר’, *ThWAT* Bd. VI, pp. 14-20.

7) 참고: H. Groß, Art. ‘מָשַׁל II’, *ThWAT* Bd. V, pp. 73-77.

Verlangen soll nach deinem Manne sein, aber er soll dein Herr sein: 그리고 네가 원하는 바(욕구)는 네 남편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너의 그(남편)는 네 주인이 될 것이다”로 번역하고 있다.⁹⁾ 그러므로 이와 상응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전 14:34-35)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하와)에게 하신 말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창 3:16)는 것은 남녀의 성을 차별하여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자라는 ‘종속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네 남편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종속관계’로 차별되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엡 5:28)고 말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아내들 이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엡 5:22, 이밖에 엡 5:24; 골 3:18; 딤후 2:5; 벧전 3:1, 5)는 말씀은 종처럼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남편의 뜻에 상응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⁰⁾ 결

8) Beyse, Art. ‘מַשָּׁל’, ThWAT Bd. V, 69–73. 특히 O. Eißfeldt, *Der Marschal im Alten Testament*, BZAW 24(1913), 6; A. H. Godbey, *The Hebrew māsāl*, SJSL 39(1922/23), 89–108; A. S. Herbert, *The ‘Parable’(māsāl) in the old Testament*, ScotJTh 7 (1954), pp. 180–196.

9) *Lutherbibel erklärt mit Erläuterungen für die bebellesende Gemeinde* (Die Heilige Schrift in der Übersetzung Martin Luther), Deutsche Bebelgesellschaft, 1982.

10) 돈 윌리엄즈도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의 구약성경적 전거를 창세기 3장 16절로 보고 있다. Don Williams, *The Apostle Paul & Woman in the Church*(Clendale: A. Division of G/L Publication, 1978), 49–73: <여성들을 위한 신학> p. 146.

론적으로 말해서, 노예 제도가 있던 구약과 신약시대에서 ‘복종’이란 말은 ‘주종관계’를 뜻하기도 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창 3:16)는 말씀의 본의(本意)는, ‘남녀의 존재론적 혹은 신분적 종속관계’보다는, ‘동반자로서의 의견의 일치 내지는 합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린도전서의 ‘머리’라는 개념도 주종관계의 우월성이나 지배권 혹은 소유권을 의미하기보다는, ‘원천’, ‘근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성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¹¹⁾

2) 남녀를 동등하게 대하신 예수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창조의 원리에 상응하게 결코 남녀를 ‘성(gender)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의 문화적 상황에서는 분명히 ‘성(性) 차별’이 심했다. 예컨대 간음하다가 현장에 끌려온 여인은 있었으나, 같이 죄를 지은 남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만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11) 로쉬(rōsh, 히) 또는 케팔레(kephalē, 헬)는 복잡한 배경을 가진 단어이다. 헬라어로 머리(head)란 시작 또는 기원(archē)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바울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한다. 이때 이 기원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라고 번역된 것은 강의 머리로 표현되었다. 마찬가지로 사도는 여자의 시작이 남자로 부터였음을 가르친 것이다. 그리고 ‘머리’ 개념은 교회론과 창조론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창조의 머리라는 뜻은 그가 창조의 기원(archē)이라는 것이며 또한 창조의 목적(엡 1:10)이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은 천상의 지도자나 관리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리스도는 교회의 지도자이시지만) 이 교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가 되신다는 뜻이다. 그가 죽으심으로 교회의 기원이 되셨고 그가 승천하심으로 교회의 영광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자상 교회는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영광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 점에 관하여: Herman Ridderbos, *Paul—An Outline of His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n, 1958), 382; Marcus Barth, *Ephesians 1–3*, (Garden City, N. Y.: Doubleday, 1974), 183ff. 이종윤은 ‘머리’를 계약의 대표로 보고 그리스도라 한다. 이종윤, 전호진, 나일선(공저), 《교회성장론》, 엠마오, 1989, pp. 152–189 참조.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요 8:5)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인용한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분명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다. 즉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서기관들은 ‘간음한 여자만’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분명히 남녀를 차별하였다.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도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른 잣대를 갖고 재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신 24:1, 3).¹²⁾

그러나 예수님은 ‘음행의 죄’는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쌍방에게 적용됨을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 예수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마 5:31-32). 이러한 말씀에 의하면, ‘간음의 책임’은 오히려 ‘남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여자를 간음하도록 방조(傍助)하는 것이며,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실제로 ‘간음(姦淫)’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1세기에 남녀의 차별이 유별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가히 혁명적이었다.¹³⁾

12) 이종윤, 《마태복음 I》(서울: 필그림출판사, 2008), pp. 180-182. 필자는 구약에서 ‘이혼증서’를 주고 이혼을 허락한 것은 신명기 24장 1-4절을 근거로 볼 때, 결혼한 여인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경우(즉 처녀가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13) David Hamilton and Loren Cunningham, *Why not woman?* (YWAM publishing, 2000)을 참조할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성을 선교대상에서 결코 배제시키지 않으셨다(no exclusion).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으러 오는 여자들을 배척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여자들을 배제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오병이어(五餅二魚)의 기적을 통하여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고 마태는 보고하고 있다(마 14:21).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개인교습시키시듯 마리아,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집에서 무릎 앞에 앉게 하시고 가르치셨다(눅 10:38-42).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에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 11:25, 26) 하심으로 기독교 신앙의 주춧돌을 한 여인에게 계시하셨는데, 이 진리는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셨다. 비록 그 여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와 생수에 대한 심오한 신학적 토론을 하셨다. 그 결과 그녀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주 그리스도이심을 이해케 되었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병행 막 8:29; 요 11:27)라고 고백한 것보다 훨씬 이전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로 들어가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요 4:29) 하면서 사마리아 성에서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다.

이상 인용한 예수님과 신약의 여성들과의 대화에 대한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여자라고 해서 복음 선포의 대상에서 결코 제외시키지 않으셨다. 오히려 여성들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수난을 항상 가까이서 동행하였고, 부활의 사건에는 증언자가 되었다.¹⁴⁾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마 21:31)고 말씀하심으로써 비천한 창녀와 같

은 여자까지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단호히 선포하심으로써, 유대교 전통의 남녀차별을 한 순간에 일소(一掃)해 버렸다.

3. 수렁에 빠진 구원 역사의 수레바퀴를 건진 여인들

1) 이스라엘 언약사의 한 매듭이 된 기생, 라합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냈다. 두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해가 저물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되었다(수 2:1). 그때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의 왕에게 고하기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여리고’의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 기생 라합에게 고하기를,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수 2:3)고 명한다. 그러나 그 때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이미 숨겨 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거짓말을 한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수 2:4b-5)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이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여 놓은 삼대에 숨긴’(수 2:6) 상태이다.

14) 이 점에 관하여: 荒井獻(아라이 사사구), 김윤옥 역, 《신약성서의 여성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pp. 43-45. 특히 44쪽에서 ‘수난·부활설화는 베다니 여성에서 시작하여 예수의 십자가에까지 따라간 여성들 및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여성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기생 라합의 예리한 ‘국제정세 판단력’과 신앙적 ‘결단력’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의해서 체포되었을 것이고, 그들이 체포됨으로써 ‘가나안’ 땅에 대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세차게 흐르는 요단 강 앞에서 이스라엘은 겁에 질려 도강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합의 ‘국제정세 판단력’,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 주게 되었다. 이 점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라합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8]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시니라 [12]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수 2:8-13).

이러한 라합의 말 속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라합의 복음 수용, 곧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

회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수 2:10). 그래서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고백을 한다. 라합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수 2:11b)고 고백한다. 셋째, 라합은 기도하는 여자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줄 아는 여인이었다. 왜냐하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다녀간 사실을 끝까지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탐꾼이 “네(= 라합)가 만일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으리라”(수 2:20)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탐과 정복은 기생 라합의 예리한 ‘판단력’과 ‘결단력’이 없었다면, 순수 인간의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의 왕에게 체포되어 죽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에 대하여 감히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미 1차 정탐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의 불가능성을 보고하였기 때문이다(민 13:28-29, 31-33).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사,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 언약(言約)의 실행 과정에서, 기생 라합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생, 라합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삽입시키고 있다(마 1:5). 한 마디로 말해서, 기생 라합은 끊어질 뻔한 이스라엘 언약사의 한 매듭이 이어 준 여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역사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여(女) 사사, 드보라

가나안에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온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왕이 세워지지 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한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절은 사사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기 위하여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교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구백 대가 있어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삿 4:2-3a).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다(삿 4:4). 그래서 드보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재판을 맡는다(삿 4:5).

사사가 된 이후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락’을 시켜 가나안 왕 ‘야빈’을 치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치러 바락과 함께 동행한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삿 4:10). 결국 가나안의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의해서 살해된다(삿 4:21-22).

이러한 사사 드보라의 기사 속에서 우리는 민족을 어려움에서 건지려는 여인 드보라의 ‘용맹’을 발견하게 된다. 사사 드보라의 역할로 이스라엘은 향후 40년 동안 평온을 누리게 된다(삿 5:31b). 뿐만 아니라, 사사 ‘드보라’는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과 함께 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삿 5:2-31a). 이 승전의 찬양사에서 드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신’, 곧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찬양한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돋을 갈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삿 5:31).

이상 구약에 나오는 두 여인들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구약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결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구약에서 이미 여성들은 사회의 명백한 한 구성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사(言約史) 내지는 구원 역사에서 한 부분을 분명히 담당하였다. 그리고 때론 공동체가 사회적 역사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분명히 일어나 공동체를 구원하는 데 앞장 서 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정적이지만 이세벨과 같은 여인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 까지도 자기 손 안에 두고 휘두르는 절대 권력의 소유자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에 악역을 담당하기도 하였다(왕상 21:1-29; 왕하 9:21-26).¹⁵⁾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에서 여성들이 긍정적인 일을 행하였건, 아니면 부정적인 일을 행하였건,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결코 간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여성들은, 예컨대 다윗의 아내가 된 ‘밋세바’ 처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자기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며, ‘에스더’와 같은 왕비는 죽음을 무릅쓰고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구약에서 여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위기로 인하여 끊어질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사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매듭을 잇는 역할을 서슴없이 감당하였다.

15) 김정수,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이세벨”, 〈성성과 여성신학〉(서울: 한국여성신학회 편, 1995), pp. 280-301. 이 논문에서 김정수는 ‘이세벨’을 옹호하면서, 이세벨은 야훼 종교와 바알 종교의 갈등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선교에 동참한 여인들

1) 남녀 제한 없는 선교의 사명(No Limits to God-given destiny)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여자라고 해서 제한하시지 않으셨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모두 남성인 이유는 전도 사역의 모델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 결코 그렇지 않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열두 제자가 모두 유대인으로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로서, 유다 외의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음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람어를 할 수 있는 갈릴리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성(gender) 문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주장하면서, 남성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

예수님도 여자 지도자를 인정하시고, 함께 사역하셨다. 예컨대 디아코네오(διακονέω, serve, serve as a deacon)라는 동사가 복음서에서 일곱 여인들과 연결되고 있듯이, 초대교회 내의 일곱 남자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베드로의 장모,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 구사의 아내 요안나, 수산나, 마리아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마 8:14, 27:55-56; 눅 8:3)에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3절에 의하면, 몇몇 여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열두 제자와 함께 섬겼다. 이와 같이 여인들과 함께 동역한 것은 당시 습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이 선교의 과정 속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사역에도 여인을 배제시키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당신의 선교사역에 여인들의 참여를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적 사역도 수행할 것을 명령하셨다.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무덤에 들어와 보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하라고 했다(마 28:6, 7). 사도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하라 하신 것처럼, 여인들에게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파할 것을 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한 여자가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눅 11:27, 28). 이렇듯 예수님은 분명히 여성으로서의 복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여성 용어’로 사용하여 쓰신 적이 적어도 두 차례나 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와 여자가 가루를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의 비유(눅 13:20-21, 15:8-10)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두 여인’에게 투사하셨다.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남성과 여성의 은유로 다 표현하시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¹⁶⁾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마 22:3). 즉 하늘나라에서는 ‘성(gender) 차별’은 없거나 ‘부적절’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에 여성이 배제되어 온 것을 구체적으로 거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16) 심지어 트리블은 “아담은 본래 양성구유자”라고 이해한다. 곧 ‘양성이 섞여 있는 한 사람 인간’이라고 본다. 이 점에 관하여: Phyllis Trible, “Eve and Adam: Genesis 2-3 Read”, 〈여성들을 위한 신학〉, p. 151.

할 권리와 의무가 여성들에게도 있음을 일깨워 주셨다. 그러므로 여성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지도자나 일꾼 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우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성(gender)’에 관하여 상기시키기 위해 하신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신 것, 곧 창조주, 보호자, 구원자, 보혜사 되시는 삼위 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겐 큰 충격이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로는 가끔 있었으나 개인적으로는 부르지를 못했다.¹⁷⁾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기독교가 ‘가부장적 종교’라고는 폄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유비적 표현(analogische Darstellung)’이기 때문이다. 즉 성경은 구속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와 자녀로 유비적으로 표현한 곳이 여러 곳 있다. 예컨대 이사야 선지자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 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사 63:16)이라고 증언한다.

특히 이사야 64장 8절은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17)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189회나 사용하셨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약 19회 정도만 나온다. 신 32:6(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삼하 7:14, 대상 17:13(다윗의 아버지), 22:10, 28:6(솔로몬의 아버지), 시 68:5(고아의 아버지), 89:26(다윗의 아버지), 103:13(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잠 3:12(아버가 아들을 징계함같이), 사 9:6(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영존하시는 아버지), 63:16, 64:8(주는 우리 아버지), 렘 3:4(유다의 아버지), 3:19, 31:9(이스라엘의 아버지), 말 1:6(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 2:10(유다의 아버지) 즉 구약에서는 개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주로 나온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니이라”고 고백함으로써,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을 가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을 고려해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결코 가부장적(家父長的) 발상이 아니라, 성경의 창조신학적 전승이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자는 남성만이 아니고 여성도 있었다(행 2:18). 그날 이후 여성도 남성과 같이 받은 성령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예언하는 자(행 21:9), 안수 받은 집사(롬 16:1; 딤후 3:11에서 여자들도 단정하고 참소치 말고 절제하며 충성하라는 것은 여집사를 두고 한 말씀) 또는 사도의 조수(빌 4:3)로서 여성 가운데 초대교회를 섬긴 이들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여성들의 활동상을 볼 수 있다. 여성 안수 문제가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한국 교회의 상황은 성경적으로 여성이 안수 받을 수 없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이 시대가 ‘아직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화적 상황 때문이라 할 것이다.

2) 바울의 선교에 실제로 동참한 여인들

사도 바울이 교회 공식 예배 때 여성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증거하는 것을 금지한 성경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여성을 사도들의 말씀으로 단장하고(딤후 2:9), 예언을 하기도 했다(행 2:17).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여성들이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선교에 동참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뵘뵘을 너희에게 천거하노니(롬 16:1), 여기에서 뵘뵘을 가리키는 디아코노스(διάκονος)란 단어는 바울과 아볼로에게 적용시킨 “사역자”와 같은 말씀이다(고전 3:5). 그리고 디아코노스(διάκονος)는 교회의 남자 직분자들에게 붙여진 집사라는 뜻이다(딤후 3:10, 12, 13). 뵘뵘이 교회

직분을 바로 수행한 자라면 뵘뵘 집사라고 용감하게 읽어야 할 것이다. 여자 집사(deaconess)라고 부득이 해야 한다면, 우리는 교사도 여교사(teacherness 또는 doctress)라고 불리운 성경구절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뵘뵘을 사도 바울은 자기 동역자(보호자)라고 부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기 동역자라고 불렀다(롬 16:3).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이름이 남자보다 앞에 놓여 있다(행 18:18; 딤후 4:19). 그리고 당시 유명한 설교자 ‘아볼로’에게 신학적 오류를 지적해 주고 성령을 가르친 자가 ‘브리스길라’ 곧 ‘여성’이었으며 그 가르침을 주도적으로 행한 이가 ‘아굴라’이다.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절대 명령이라면 ‘브리스길라’는 이 같은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자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도 큰 실수이다. 그러나 성령은 ‘브리스길라’를 ‘선생들의 선생’으로 만드시고 그 직분을 감당케 하셨다.

고린도전서 11장 3-16절에서 사도는 교회 안에서 여성의 봉사 역할을 상론하고 있다. 여성도 교회 안에서 기도와 예언은 회중 가운데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5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한 것은 여성의 머리 스타일이 아니다. 교회의 권위라는 차원에서 남녀가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경과 권위의 사인으로 머리에 베일을 쓰도록 한 것은 당시 사회의 풍습을 들어 말한 것이지 베일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존경과 권위의 중요성을 가르친 것이다. 교회 봉사의 영역에서 여성의 위치가 있음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은 여성의 교회에서의 역할을 부정한 말씀처럼 들린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함을 허락함이 없나니”한 것은 11장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성경을 항상 전체적으로 읽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연속으로 34절을 읽게 되면

당시 교회 안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자들의 말로 인해 생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좀 조용해야겠다는 것이다. 어떤 주석가들은 34절과 35절은 바울의 기록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33절에서 36절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주장과 몇 개의 사본 제시도 하고 있으나 이 같은 설은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혹자는 여자로 하여금 질서를 따라 정당한 발언을 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재잘거림을 금한 것이라 하나 이 같은 이론도 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

고린도전서 11장의 기도나 예언은 개인적인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공적인 것을 금한 것(14장)과는 충돌이 없다는 해석도 있지만 지나치게 합리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근거 없는 이론이라 하겠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에서 여성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다고 가르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잠잠하라’(σιγάω)는 말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3차례 나타난다. 그중 두 번은 남자에게, 한 번은 여자에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세 차례 모두 절대명령이 아닌 조건적임을 유의해야 한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28절).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30절). 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34절) 했다. 이것도 조건 명령이다. 교회에서 자주 말로 혼란을 일으키는 여인들에게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하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한 것이다.

그런고로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은 특별한 시대에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던 교회에 주신 경계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8-14절은 교회 여성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또 다른 성경구절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바른 해석만이 그 같은 편견을 몰아낼 수 있다. 우선 8절에서 “남자들이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사도가 바란 것처럼 “이와 같이” 여자들도 기도하기를 원한 것

이다. ‘각처에서’란 공적 장소를 말한다. 남자들이 한 것처럼 여자들도 공적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도(예의를 갖춘 옷을 입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사실 이 본문은 교회 내에서 여성의 사역을 부인한다는 해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이다. 오히려 여성의 사역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면 11절에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종용히(침묵으로) 배우라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선 여자들(γυναῖκας, 9절)에서 여자(γυνή, 11절)로 바뀐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기도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난 후(9절) 11절에서는 남편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결혼한 아내는 공중 앞에서 자신에게 남의 시선을 집중케 하기보다 오히려 조용해야 하며, 가르치기보다 배워야 하며, 권위를 갖고 주장하기보다 복종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좋은 자세임을 말한 것이다. 고로 바울은 교회에서 여성이 공적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교훈을 한 것이 아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과 5장 13절 그리고 이 서신의 전체적 분위기로 보아(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내에서 여자들의 말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많았다는 것도 쉽게 추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의 ‘종용하라’는 말은 집회 시 말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시 문화적 상황에 나타난 일반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 준 말이다. 즉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보여 준 말씀처럼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2절에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것은 남자의 권위가 여자의 것보다 높거나 크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말한 ‘주관하는’ 권위는 절대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절대적 힘을 갖고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12절은 여성들이 자신을 절대 권위를 가진 자처럼 말도 행동도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친 것이다(절대 권위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 권위를 갖고 남자를 가르치려는 여성을 허락지

않았다고 사도는 말씀한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과 같이 교회 내에서 섬기기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권위를 갖고 이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마서 16장에는 ‘뵤뵤’와 ‘브리스길라’ 이외에 또 다른 여성 지도자가 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롬 16:12). 그리고 사도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빌 4:3)고 권면하고 있다. 여기서 “복음에 수고했다”는 말 속에는 설교한다는 말은 예외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 “주 안에서 수고한”이라는 말에는 공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은 배제되었다고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며, 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갇혔던 자라고 말한다(롬 16:7). ‘유니아’는 여성이다. 저희들은 사도에게 인정을 받은 여인들이다. 헬라의 가정교회 지도자요 최초의 회심자는 자주 장사 ‘루디아’였다(행 16:13-40). 이 여자는 남자와 함께 초대교회에서 기도와 예언을 했다(고전 11:4, 5).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니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히 여김을 받는 자라 했다(롬 16:7).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로 아내의 이름이 종종 먼저 나온 것으로 보아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한 것 같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선교는 결코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많은 여성 선교자들이 그를 도왔다. 이렇듯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수많은 여인들이 소식을 전할 수 있음을 배워야 한다(시 68:11).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여인들은 남자와 함께 사자 굴에 던짐을 받았고, 여성들이 선교사로, 순교자로, 성경번역자로 교회사에 빛나는 이름을 남긴 이들이 많았다. 이런 차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남녀관계가 다스림의 관계로 깨어져 균형이 무너졌으나,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가 다 하나’라고 강조하였다(갈 3:28). 즉 십자가를 통해 남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 것이다.

5. 결론: 선교의 동역자로서의 여성

남녀의 관계는 십자가로 인해 변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아직’ 완전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권리를 감추거나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고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 자세로 여성들은 교회와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의식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공적으로 가르치고 치리하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목사와 장로 그리고 교사에게 주신 사역이지(엡 4:1) 어떤 특정한 성(性)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다.¹⁸⁾ 따라서 남녀는 하나님의 동일한 피조물로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의존적이어야 한다. 두 성 사이에는 누가 누구를 다스리느냐는 긴장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므로 오히려 자기를 버리는 순종으로 피차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남자와 여자는 함께 일해야 한다.

교회에서 여성의 기도와 말씀 봉사가 더 이상 감춰지거나 무력화되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군에서 여성이 복음을 전하고 장병들을 돌보는 일에서 제외되어서도 안 된다. 21세기를 향한 선교에 여성의 힘이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군에서도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사회는 결코 가부장적이거나, 모계중심 사회가 아니라 양성평등의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전근대적인 성차별

18) 참고. 김광식, “여성 사제직과 토착화”, 《愚步 沈一變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서울: 국학자료원, 1994), pp. 205-223.

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살전 5:19). 특히 그리스도의 대명(Great Commission, 마 28:18)을 누가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묻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성(gender)의 구별 없이 이 선교를 위해서 남녀를 사역자로 선택하시고 보내셨다.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다(1:27)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것처럼 선교에 대한 책임 또한 남녀에게 주어진 동일한 책임이다. 비록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창 3장) 남녀의 하나 됨과 상호 보충적 관계에 금이 가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폭력과 의심과 편견이 생겨 자라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자기 일을 위해 똑같이 부르셨다. 예컨대 모세,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처럼 미리암, 드보라, 홀다(왕하 22:14)도 여선지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쓰시듯 왕후 에스더를 쓰셨다. 따라서 성(gender) 차별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일에 여성과 남성을 함께 부르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하인(남자)을 고치시고(마 8:5-13)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여자)를 고치셨다(마 8:14-17). 중풍병자(남자)를 고치시고(마 9:2-8), 열두 해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고치셨다(마 9:19-22). 예수님은 이렇게 차별없이 남녀를 대해 주셨다.

오히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 길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고, 어느 누구보다 먼저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 또 당시 풍습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간 귀신들려 꼬부라져 펴지 못한 한 여인을 불러내어 고치신 것은(눅 13:10-17) 예수님의 선교대상

그 자체에도 남녀의 구분이 없음이 명백하다. 개종 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넘길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 내었다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여성들의 신앙은 남성들의 신앙에 못지않았음을 암시해 준다(행 8:3). 새싹처럼 움돋는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은 여인을 무엇 때문에 끌어 옥에 가두었겠는가? 그렇다. 초대교회에서는 여성 지도자들이 남성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혼신을 쏟았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군대에서 ‘여성 군목의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논리로 말하면, 조만간 한국군에도 여성의 숫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性)’ 문제는 복음 전파에 아무런 전제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